



한국의 보물, 해인<29>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실존인물로서의 사명대사 전기

사명당 유정은 조선 중기의 고승(高僧)인데, 호를 송운(松雲)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명종(明宗) 11년(1556)에 김천(金泉) 직지사(直指寺)에서 출가하였으며, 5년 뒤에 승과(僧科)에 합격하여 유생(儒生)들과 널리 교류하기도 했다. 이때 사명당은 당시 재상인 노수신(盧守愼, 1515 - 1590)에게 『노자』, 『장자』, 『열자』와 시를 배우기도 했다.



사명대사 열화

사명당은 선조(宣祖) 8년(1575)에는 묘향산 보현사에 주석하던 휴정대사(休靜大師)를 찾아뵙고 선리(禪理)를 참구하였다. 그 후 그는 전국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정진을 거듭하였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당은 당시 금강산 유점사에 있으면서 인근 고을의 백성들을 구출하였고,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義僧兵)을 모아 그 후하에 들어갔다.

사명당은 의승도총섭(義僧都總攝)이 되어 의승병 2천여 명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하다가, 이듬해 1월 평양성 탈환의 혈전에 참가하여 성을 수복하는데赫赫한 전공을 세웠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표창하여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를 제수하였다. 그 후 사명당은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1537 - 1590)과 경남의 령에서 왜군을 격파하여 전공을 세우고 당상관(堂上官)의 위계를 받았다.

그는 선조 27년(1594)에는 명(明)나라 총병(總兵)이었던 유정(劉綎)과 의논하고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적진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진영을 방문하여 화의(和議)를 위한 담판을 하였다. 이때 사명당은 임금에게 전쟁에 대비한 현실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직접 승병을 이끌고 산성수축(山城修築)에 합쳤다.

또 사명당은 해인사(海印寺) 부근에서 활, 활촉 등의 무기제조에도 힘을 기울였고, 투항한 왜군의 조총병을 비변사(備邊司)에 인도하여 화약제조법과 조총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명(明)나라 장수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 도산, 순천, 예교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고, 선조 35년(1602)에는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使)가 되었다.

선조 37년(1604) 2월 사명당은 오대산에 머물다가 스승 휴정의 부음(訃音)을 받고 묘향산으로 가던 도중에, 선조(宣祖)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가서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使臣)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그해 7월에 국왕의 친서를 가지고 왜(倭)로 건너가서 이후 8개월 동안 노력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만나 강화를 맺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이듬해 5월에 사명당은 전란 때 왜(倭)에 잡혀간 조선인 포로 3,500명을 인출하여 귀국했다. 그 뒤 사명당은 병을 얻어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서 요양하다가, 광해군(光海君) 2년(1610) 8월 26일에 설법하고 절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그는 초서(草書)를 잘 썼다고 전하며, 밀양의 표충사(表忠祠)와 묘향산의 수충사(誦忠祠)에 배향되었다. 이상이 역사적 인물인 사명당의 실제 삶에 대한 요약이다.

무엇보다도 『임진록』의 내용처럼 사명당이 서산대사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갔던 것이 아니며, 그가 왜(倭)에서 활약할 때 서산대사가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명당은 스승인 서산대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 묘향산으로 가던 길에, 조정의 명을 받고 상경(上京)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도쿠가와외의 수차례에 걸친 화친(和親) 요구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사명당을 왜(倭)에 보내 정확한 정세를 정탐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은 신유환(申維翰, 1681 - ?)이 편찬한 『분충서난록(奮忠書難錄)』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유환이 사명당의 행적에 대해 내린 평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 갑진년(甲辰年, 1604) --- 조정에서 --- 송운(松雲, 사명당, 필자 주)의 대명(大名)이 평소 왜주(倭酋)의 심복하는 바이기에, 특별히 명령하여 배와 행장을 성대하게 꾸며주어, 옛날 달마(達磨)가 동쪽으로 건너오던 행차처럼 하여, 군국(郡國)을 유람한다는 평계를 대고, 그 지방의 인심을 두루 살피고, 또 자비의 교(敎)를 이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을 깡그리 되돌려 오려고 했다. 저들

의 부처를 사모하고 복을 구하려는 습속 때문에 (사명당이) 이르는 곳마다 <왜(倭)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여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부처님이라 부르고 조사님이라 칭하게 되었으니, --- 그가 조정에 돌아와 보고한 뒤에, 비로소 통신사를 보내어 옛날처럼 친목을 다졌으니, 당시 송운(松雲)을 보낸 한 가지의 일은 진실로 상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사명당이 왜(倭)에 들어간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조정에서 궁금하던 차에, 그에 관한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일어났다. 사명당의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파견하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명당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마치 개신장군처럼 귀국했다. 더욱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사명당이 오랫동안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처벌하지 말 것을 조선 정부에 특별히 요청하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극적인 요소가 사명당설화가 형성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전한다. 사명당에 대한 평가에는 당시 왜(倭)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조선(朝鮮)과의 강화 협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또한 왜인(倭人)들이 평소 소승(小僧)을 존경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倭)의 전체 백성들이나 당시 관백(官伯)이었던 덕천가강(德川家康)마저도 사명당에게 경복하고 사명당을 마치 부처님처럼 모셨다는 사실은, 사명당이 왜왕(倭王)과 맞서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서도 사명당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효(豐臣秀秀)를 항복시켰다는 『임진록』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명당은 실제로는 덕천가강(德川家康)과 강화 회담을 벌였던 인물이다.

어쨌든 강화 회담의 주역이자 수많은 전쟁포로들을 데리고 온 장본인인 사명당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수많은 설화의 주인공으로 재탄생되었다. 민중들의 승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비로소 사명당이 법력과 도술을 사용하여 왜왕(倭王)을 굴복시켰다는 사명당설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설화에 나타난 사명당의 모습

사명당은 임진왜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이다. 그는 신분이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승려계층이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중들에게는 오히려 도술을 지닌 인물로 비추기도 했다.

실제로 사명당은 자청하여 전란에 나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제수받아 천대받는 중의 면모를 쇄신(刷新)했다. 사명당은 승려라는 독특한 신분으로 전란 중에 크게 활약하였고, 그의 수도자다운 인품이 적을 위압하여 설득시켰다. 이러한 그의 역할을 통해 도승(道僧)으로서의 영웅적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명당에 대한 이인설화(異人說話)가 향간에 많이 퍼져나갔다.

홍만중(1643 - 1725)이 지은 『순오지(旬五志)』에는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난이 평정된 후 가강(家康)이 일본 관백이 되어 통신사를 우리나라에 청하니 (듣는) 사람마다 통분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변방에 특이 생각과 염려하여 유정(惟政)을 왜(倭)에 보내어 적정(敵情)을 시험하게 하였다.

왜인이 평소 유정의 명망을 중하게 여겼는데, 그의 절의(節義)를 시험하려고 위협하여 항복하게 하니, 유정이 "내가 우리 국왕의 명을 받들어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왔으니 --- 나의 무릎을 너희들을 위하여 굽힐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왜인이 숯불을 크게 이루어 뜨겁게 불을 화로처럼 하여 두고, 유정에 그 불 안에 들어가 보라고 했다. 유정이 얼굴빛도 움직이지 않고 불을 향하여 서서 뛰어든 것처럼 하니,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듯듯이 쏟아져 불이 곧 꺼져버렸다. 왜인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유정을) 신(神)이라고 높이며, 마침내 (그에게) 절하면서 "하늘의 도음이 이와 같으니, 대사는 진정 생불(生佛)이 오이다."라고 말하고는 곧 금금(金輪)에 모셨다. ---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

위와 같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듯한 사건이 확대되고 나름대로 해석되어 『임진록』에서는 사명당이 갖가지 어려운 시험을 신비한 조화의 힘을 사용하여 극복했다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다. 문헌 전승에서는 대체로 사명당이 대담무쌍한 대장부이거나 능력이 탁월한 무장(武將)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명당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당시의 위정자들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성공리에 수행했던 위대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사명당의 성공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의 이면에는 위정자들의 반성 촉구와 신분 차별과 멸시에 대한 민중의 예리한 비판이 깔려 있다. 지배집단의 무능과 허위의식이 폭로됨으로 인해 민중의식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사명당설화가 갖는 역사적 의의다. 그러므로 사명당설화에는 당시 민중들이 체험했던 현실적인 질곡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중에 의해 설정된 이상세계가 동시에 표출되어 있다.

문헌자료가 아닌 구비로 전승된 사명당설화도 살펴보자. 사명당에 대한 구비설화는 그의 출가(出家) 이유를 말하는 설화와 그가 임진왜란 후에 왜(倭)에 사신으로 가서 활동한 이야기로 크게 구별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대부분이 『임진록』의 기록과 비슷하다.

사명당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왜왕이 시(詩)를 병풍에 적어 그가 지나가는 길에 진열했는데 사명당이 모두 암송했으며, 왜왕이 사명당을 무쇠막에 가두어 넣고 숯불을 피워 죽이려 했으나 사명당이 도술을 부려 왜왕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수명과 눈썹에 고드름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발경계 달군 무쇠로 만든 말을 타보라는 왜왕의 요구에, 사명당이 비를 불러 왜국을 물에 잠기게 하여 결국 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매년 인피(人皮) 삼백 장과 불알 세 마씩을 우리나라에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임진록』의 내용이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명당설화는 임진왜란 때 형성된 왜적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과 민족적 긍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명당은 단순히 임진왜란 때 전공과 외교적 성과를 올린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외적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구한 도(道)가 높은 민족적 영웅으로 승화된 것이다.

『임진록』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인물들을 영웅화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이야기를 장췌했다. 민중들은 그들에게 도술을 부여함으로써 쉽사리 영웅적 존재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도술이야말로 난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손쉬운 방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소재다.

실제 역사에서는 사명당과 관련된 보물인 해인(海印)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순오지(旬五志)』에는 왜(倭)의 관백(官伯)이 사명당에게 소원을 묻자, 사명당이 왜인(倭人)들이 가져간 동화사(桐華寺)의 불화(佛畵)를 요구했지만, 관백이 들어주지 않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 당시 사명당은 이 불화에 대해 "이 부처님이 매우 영험하여 비람과 비를 빌 수 있고, 재앙을 벗기고 상서(祥瑞)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사명당이 서산대사에게서 받았다는 해인이라는 보물은 실제 역사의 무대에 존재했던 물건이 아니라, 만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보물이 있었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당시 민중들의 희망이 결집한 원망체(願望體)로서 '믿음의 영역에 존재했던 성물(聖物)'이다.*

김택 박사 / 신종교연구가

이슬은 사람 속에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분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2부 행사를 위한 무궁화관 현악단의 리허설이 당일 오전 11시경에 있었는데, 그때 이슬성신이 사진기에 찍혀 나왔다.(사진 참조)

하나님께서 말씀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동과 같은 은혜를 부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피와 불과 같은 성신이 내리고 뭉게구름 같고 연기 기동처럼 내리는 곳은 지구 땅에서 승리제단 밖에 없다.

한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슬을 내리는 이긴자(히브리어로 이스라엘)를 백합화와 같다고 했는데, 함동찬 송가 88장 후렴에 '구주(구세주)는 산곡의 백합'이라는 가사와 짝을 맞추면 이슬을 내리는 이긴자가 곧 구세주라는 정답이 나온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 이긴자 구세주가 강림할 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에는 모세를 필두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 그리고 요엘 선지자 등이 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면, 이긴자 구세주와 이슬로 변신한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긴자 구세주의 분신이 곧 이슬성신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을 풀이하면 하나님 의자는 하나님데 하나님 하고 이긴자 하고 둘이 앉을 수 없는 고로 '하나님이 이긴자이고 이긴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다.

이긴자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 분신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말씀] "각 사람 속에 이 이긴자의 분신이 들어가서 마귀 영을 죽여 없애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된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바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무덤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마귀가 죽으니 마귀가 무덤이고 무덤이



이긴자에게서 나오는 감로이슬성신

마귀인고로 무덤을 파하고 하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을 가지고 바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도로 산다고 그러죠?"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동=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묵시록 말씀과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서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

